

## < 학 습 지 도 안 >

**2019 학년도 봄학기(7 주차) 4 월 13 일 백두반 남 일 교장**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 한글날 제 573돌이 되는 해**

단원 명(과)	백두반/졸업반 봄학기 수업 제 6주차			
	문법·관용표현·읽기와 쓰기 및 발표하기			
교재	조선시대 역사2•알쏭달쏭 헛갈리는 맞춤법 & 한국한자검정 6, 7급			
	한국문화/역사 100선•SAT한국어 문제(어휘력 & 읽기 강화)•시사관련 자료			
본시 지도 목표	말하기			
	듣기			
	읽기	漢字 공부를 통한 우리 문화 및 역사 쉼터		
	쓰기/숙제	한자 7급 & 우리말 빛내기		
	기타 활동	교내 작문대회 & 번역대회 시상식 도우미		
지도 내용		시간	평 가	
1교시	보조교사(7주차)		1시간	4월 반장 이유진
	강당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의 보조 교사			
2교시				
3교시 11:20 12:40	한국 역사 & 문화			

안내 및 협조사항	
<p>● 축하!! 지난 주 2019학년도 NE글짓기대회에서 최정완(대상), 허술(1등) 수상했습니다.  <u>백두반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 기한 (졸업기준이므로 준수할 것)</u></p> <p>* 백두반 기본 한글 작문 제목 및 제출기한 (작문은 Letter size 에 2 페이지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 (10 월 20 일까지 제출)</li> <li>2)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와 음악 (11 월 17 일까지 제출)</li> <li>3) 내가 기억하는 전래동화 얘기 (12 월 15 일까지 제출)</li> <li>4) 남한과 북한의 현재,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li> <li>5) ‘기후변화’에 대해 나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 (2 월 23 일까지 제출)</li> <li>6) 나의 미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3 월 23 일까지 이메일로 제출)</li> <li>7) 졸업 Speech (4 월 20 일까지 이메일로 제출)</li> </ol>	

**(지난 주 4월 6일) 출석/숙제/보조교사 시간 및 Point 합계**

이름	김준영	이상재	이유진	최정완	허 솔	비고
출석	1	1	1	1	1	
출석(P)	5	3	5	4	4	
숙제	1	1	1	1	1	
숙제(P)	5	2	4	4	3	
TA	1	1	1	1	1	
TA(합)	14.5	14	19	12	13.5	
Project	-	-	-	5	5	NE글짓기대회 참가
Project Total	10	5	10	10	15	

* 백두반 '19 졸업반의 보조교사 봉사 계획표/2019 봄학기				
	학생 이름	보조교사 시간	학급 이름	교실 번호
1	허은빈	10:30~11:20	봄반	RM 105
2	최정완	10:30~11:20	여름반	RM 107
3	이유진	10:30~11:20	가을 1 반	RM 142 OW
4	이상재	10:30~11:20	가을 2 반	RM 152 OW
5	김준영	10:30~11:20	겨울반	RM 143 OW

* 백두반 반장(Class Captain/Prefect) 리스트			
Month	NAME	Month	NAME
2018 년 9 월	이상재	2-3 월	이상재
10 월	이유진	4 월	이유진
11 월	허 솔	5 월	허 솔
12 월	김준영	6 월	김준영
2019 년 1-2 월	최정완	6 월	최정완

* 백두반 졸업 사진 촬영 일정 및 졸업생 발표연습 *			
5 월 4 일 (1 차)			
5 월 18 일 (2 차)			
졸업식 발표연습	4 월 27 일	1 차	
	5 월 4 일	2 차	
	5 월 19 일		
	6 월 1 일		

◆ “그냥 외워!”가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 ◆

아름다운 우리 말, 한글과 문화/역사

백두반 수업자료 (4 월 13 일)

## ‘햅쌀’과 ‘누룽지’의 비밀

햅쌀? 햅쌀이 아니고?

햅사과, 햅곡식인데 왜 쌀만 햅쌀?

누룽지가 맞나?

눌은밥을 생각해 보면 ‘눌은지’라고 써야 할 것도 같은데?



누구나 경험해 본 ‘가장 쉽고도 어려운 시험’이 있으니 바로 ‘받아쓰기’이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접하게 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밀려야 본전’이 아니라 ‘잘해야 본전’이다. 그저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글자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확인해 그대로 써야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 쓰기 십상이다.

여기 받아쓰기 문제 둘이 있다. 하나는 ‘쌀은 쌀이되 그 해에 수확한 쌀’을 뜻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가마솥에 밥을 지을 때 바닥에 눌러 붙은 밥’을 뜻하는 단어이다. 선생님께서 불러 주신 대로 ‘햅쌀’이라고 쓰면 될 텐데 뭔가 의심을 품은 아이 하나가 고민을 한다. “햅쌀? 햅쌀이 아니고? 햅사과, 햅곡식인데 왜 쌀만 햅쌀?” 그다음 문제도 역시 의심스럽다. “누룽지가 맞나? 눌은밥을 생각해 보면 ‘눌은지’라고 써야 할 것도 같은데?” 그저 눈에 익힌 대로 그려 내면 될 것을 공연히 깊게 생각하다 혼란에 빠진다.

‘쌀’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쌀’은 방언 간의 변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전국 어디를 가나 ‘쌀’일 뿐 쌀을 가리키는 다른 말은 없다. 역사적으로도 쌀을 지시하는 다른 말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쌀’은 ‘쌀’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 된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같은 자음을 겹쳐 쓰기도 하고, 받침에는 서로 다른 자음을 겹쳐 쓰기도 하지만 글자의 첫머리에는 자음을 겹쳐 쓰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쌀’과 같은 표기를 보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나?

ㅂㅅ + • + ㄹ = ㅂㅅㄹ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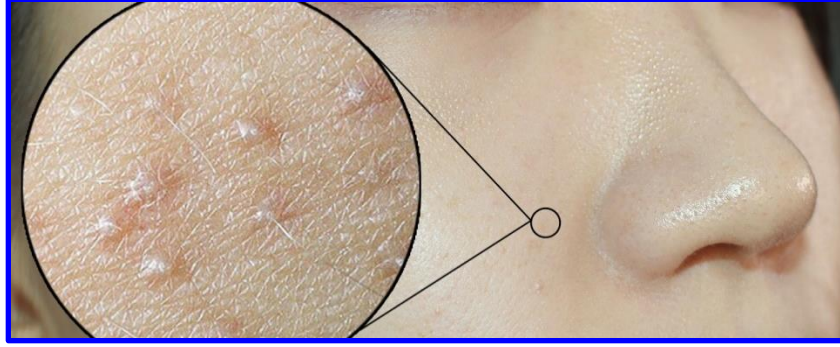
일단 표기 그대로 읽어 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ㅂ’은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이니 ‘ㅂㅅ’은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ㅅ’ 소리를 내면 된다. ‘브스’를 발음하면서 앞의 모음 ‘ㅡ’가 없이 연속적으로 나는 소리라 생각하면 된다. 오늘날에는 없는 소리이지만 굳이 못 낼 소리도 아니다. 표기도 이렇게 돼 있고, 발음도 가능하니 ‘쌀’의 ‘ㅂ’과 ‘ㅅ’은 모두 발음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ㅂㅅ’은 모두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본다.

비록 오늘날에는 된소리로 바뀌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ㅂㅅ, ㅂㅈ, ㅂㅊ’ 등 ‘ㅂ’이 앞에 붙은 이러한 겹자음들은 각각의 소리가 모두 발음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입증할 다른 방법도 있다.

11세기 고려를 방문한 중국(中國) 송(宋)나라 사신 손목(孫穆)은 고려 말에 관심이 많아 353개의 단어를 《계림유사 鷄林類事》란 책에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 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쌀’을 ‘菩薩(보살)’로 적어 놓았다. 당시에는 글자가 한자(漢字)밖에 없으니 한자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 글자가 아닌 두 글자로 적은 것이 이상하다. ‘쌀’은 예나 지금이나 한 글자로 적을 수 있는 소리인데 두 글자로 적은 것은 ‘쌀’의 당시 발음에 대해 알려 준다. ‘ㅂ’과 ‘ㅅ’의 소리를 모두 들은 송나라 사신 손목이 **어쩔 수 없이 한자 두 글자로 적어 놓은 것이다.**



‘밭’에서 ‘ㅂ’과 ‘ㅅ’이 모두 소리가 난 증거는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알갱이가 작고 노란색을 띠는 곡식의 이름인 ‘조’는 뒤에 쌀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조쌀’이 아닌 ‘좁쌀’이 된다. ‘조’와 ‘쌀’이 합쳐질 때 난데없이 ‘ㅂ’이 끼어들 수는 없다. 이는 결국 ‘밭’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밭’의 ‘ㅂ’과 ‘ㅅ’이 모두 발음되던 시기에 ‘조’와 결합되면 ‘밭’의 ‘ㅂ’ 소리가 ‘조’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밭’의 ‘ㅂ’이 사라지고 ‘쌀’로 바뀐 뒤에도 이전에 만들어진 ‘좁쌀’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참쌀, 맵쌀, 입쌀’ 등도 ‘쌀’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쌀’의 발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조 + 바 + . + ㄹ = 조<sup>밭</sup> → 좁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햅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햅쌀’ 역시 ‘쌀’이 ‘밭’이던 시기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단어를 다시 만든다면 ‘햅쌀’이 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의 말이 화석처럼 오늘날의 말 속에 남아 있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쌀과 관련된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법씨’의 ‘씨’, ‘입때, 접때’의 ‘때’ 등도 다 마찬가지다. 새로운 단어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롭다.



## ‘누룽지’가 맞나? ‘눌은지’가 아닌가?



‘누룽지’는 ‘**눌은밥**’ 때문에 좀 헷갈린다.

가마솥에 눌러붙은 밥이 누룽지이고, 그것에 물을 부어 더 끓여 낸 것이 눌은밥이니 두 단어의 기원은 같음을 알 수 있다.

‘눌다’가 ‘눌어, 눌으니’와 같이 바뀌니 ‘눌은밥’은 말 그대로 ‘눌은 밥’이다.

이를 감안하면 ‘누룽지’는 ‘눌은 지’일 텐데 ‘ㄹ’도 내려 쓰고, 두 번째 모음도 ‘ㅡ’가 아닌 ‘ㅜ’이고, 마지막의 ‘지’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누룽지 = **눌**다 → **눌**어 → **눌**으니 ⇒ **눌은**밥

결국 옛 문헌이든 방언이든 뒤져서 답을 찾아야 한다.

‘누룽지’의 충청도 사투리 ‘누룽갱이’가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제공한다. ‘누룽갱이’는 ‘누룽기’와 ‘앙이’로 분해될 수 있다. ‘누룽기’는 본래 ‘눌은 기’였을 것이다. ‘눌은 기’가 ‘누룽기’가 되는 이유는 발음을 해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기’의 정체인데 안타깝게도 다른 예를 찾기 어렵다. 그래도 바닥에 달라붙은 무엇 정도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누룽기’에서 ‘기’는 나중에 ‘지’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누룽지’가 된다. ‘기름’이 ‘지름’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다.

## ‘누룽지’ → 지역마다 다른 이름 (방언형)

‘누룽지’는 ‘깜밥’, ‘소꼴기’, ‘바깡’, ‘밥구잘’, ‘까마 티’ 등으로 다양한 방언형이 있다.

‘깜밥’은 ‘까만 밥’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고,

‘소꼴기’는 ‘술 굽이’ 정도로 풀이된다.

술을 빚고 남은 지게미를 ‘술강’이라고도 했으니 ‘바깡’은 아마도 ‘밥강’이었을 것이다.

‘밥구잘’은 ‘밥 과줄’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과줄’은 밀가루를 기름과 꿀에 반죽하여 기름에 지진 일종의 과자이니 ‘밥 과줄’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

‘까마티’는 ‘가마티’, ‘가마치’로도 나타나는데 ‘가마’는 말 그대로 ‘가마솥’이다. 결국 ‘누룽지’의 ‘지’와 함께 ‘티’가 무엇일까는 숙제로 남는다.

### 결론...

‘햅쌀’과 ‘누룽지’는 말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뜻을 생각하고 주변의 다른 단어를 생각하면 헛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조금 헛갈리더라도 그 세계에 빠져들어 가는 것도 괜찮다. “그냥 외워!”가 아니라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다시는 헛갈리지 않는다. 그저 무심히 쓰는 단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 속에 녹아 있는 문화와 역사 등 얻을 것들이 많다.

볍씨를 뿌려 모를 키우고, 모를 심어 벼를 수확하고, 벼를 찧어 쌀을 얻고, 쌀을 안쳐 밥을 짓고, 밥을 푸고 난 뒤 누룽지를 굽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영어로는 그저 ‘라이스(rice)’라고 한 단어로 일컫는 것을 우리는 왜 이리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말들의 기원과 쓰임을 낱낱이 파헤치면 햅쌀로 지은 밥맛은 더 깊어지고, 누룽지 맛은 더 고소해질 것이다.

### (참고 1) 쌀의 역사

쌀은 양쯔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재배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이 곳에서 야생에서 자라던 쌀이 인공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중부에서는 인디카종의 쌀과 자포니카종의 쌀이 재배되었다. **기원전 3 백만 년 전 쌀의 재배는 동남아시아와 서쪽인 인도와 네팔에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3년 한국의 고고학자들은 15,000년 전의 쌀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여 기존 중국에서 12,000년 전에 발견되었다는 설보다 더 앞선 증거를 보였다. 이 쌀의 유전자는 오늘날의 쌀과 다르며 굉장히 오래된 유전자라고 밝혀졌는데 2011년 스탠포드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유래한 쌀만이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기원전 3000~2500년 경에는 힌두스탄 평원으로 전해졌다 한다.

### (참고 2) 세계의 대표적인 쌀 음식

- |   |                             |   |                       |
|---|-----------------------------|---|-----------------------|
| • <a href="#">나시고렝</a> (nasi goreng) 동남아  | • <a href="#">밥</a>         | • <a href="#">죽</a>                         | • <a href="#">동동주</a> |
| • <a href="#">나시르막</a> (nasi lemak) 말레이시아 | • <a href="#">볶음밥</a>       | • <a href="#">초밥</a> 및 <a href="#">유부초밥</a> | • <a href="#">막걸리</a> |
| • 전통 쌀음식                                  | • <a href="#">비빔밥</a>       | • <a href="#">춘권</a>                        | • <a href="#">소주</a>  |
| • <a href="#">누룽지</a>                     | • <a href="#">비빔</a>        | • <a href="#">치킨 라이스</a>                    | • <a href="#">식혜</a>  |
| • 누룽지탕                                    | • <a href="#">빠에야</a> (파에야) | • <a href="#">필라프</a>                       | • <a href="#">청주</a>  |
| • <a href="#">뎡밥</a>                      | • <a href="#">쌀국수</a> (pho) |   |                       |
| • <a href="#">도리아</a>                     | • <a href="#">오므라이스</a>     |   |                       |
| • 리조또                                     | • <a href="#">카레라이스</a>     |   |                       |





## 제 목: 졸업 &amp; 수료자 발표용 원고

이름: \_\_\_\_\_

[illegible]